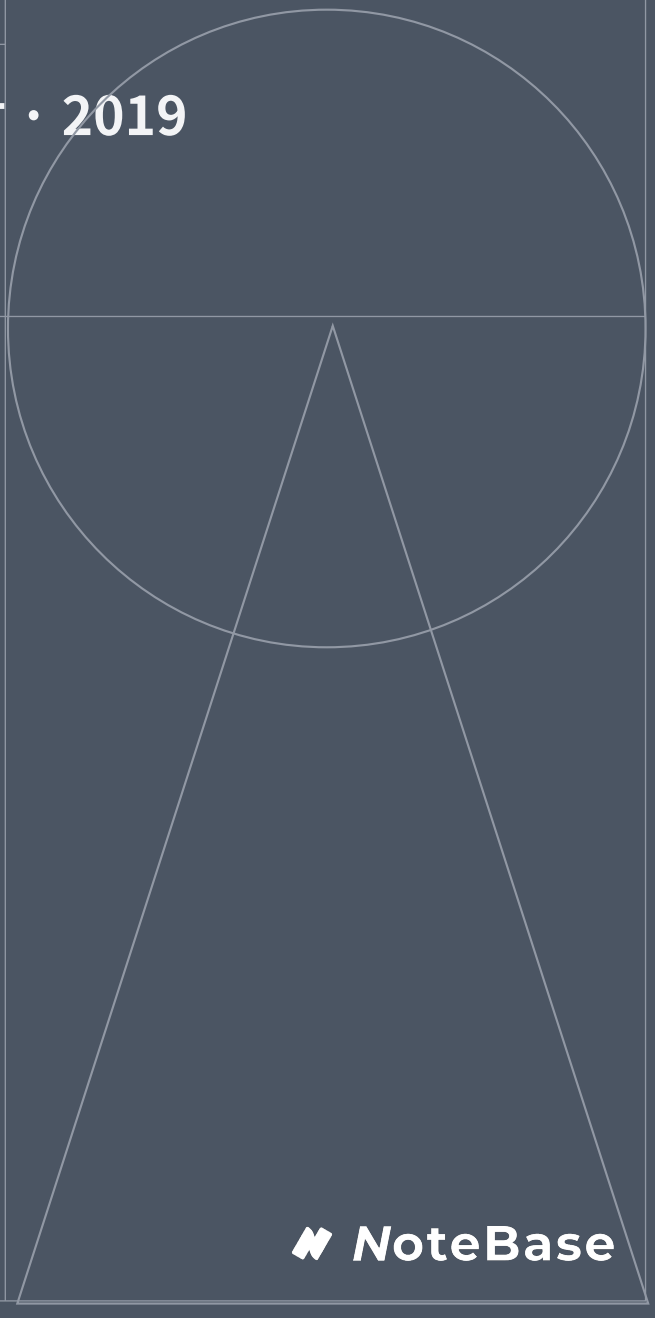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9

문 1. 외환시장에서 일정 기한 내에 미리 정해 놓은 특정 환율로써 외환을 매매할 권리를 가지는 거래는?

① Forward Exchange Transaction

② Currency Swap

③ Futures Contract

④ Currency Opti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물환, 통화스왑, 통화선물, 통화옵션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환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물환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장외계약이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다시 맞교환하는 거래이다.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을 미래에 이행하는 선물계약이다.
통화옵션은 일정 기간 또는 만기일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래이다.
결정 차이축은 의무인지 권리인지이다. 선물환과 통화선물은 이행의무가 있고, 통화옵션만 권리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은 선물환거래이다.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환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권리만 갖는 거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권리'이다. 올바르게는 '미래에 외환을 매매할 의무를 정하는 거래'이다.
② X: Currency Swap은 두 통화의 원금이나 이자지급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옵션처럼 일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일정 기간 내 특정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권리'이다.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이후 다시 교환하는 거래'이다.
③ X: Futures Contract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선물계약이다. 장래의 일정 시점에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지, 권리만 부여하는 계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권리'이다. 올바르게는 '표준화된 조건으로 미래 매매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④ O: Currency Option은 미리 정한 환율로 일정 기간 안에 외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래이므로 발문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답 포인트

선물환과 통화선물도 미래 환율을 미리 정한다는 점 때문에 통화옵션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출제자는 '권리'라는 단어로 함정을 만든다. 미래 환율을 고정한다는 공통점보다 계약 이행이 의무인지 선택권인지가 정답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파생상품 선지에서 '권리'가 보이면 옵션을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미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면 선물환이나 선물계약 쪽으로 판단한다. 스왑은 서로 교환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옵션은 권리, 선물환·선물은 의무, 스왑은 교환이다.

NoteBase

문 2.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 )는(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이를 규제하고 있어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 )는(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WTO 규범은 외국의 수출기업이 국내시장에서 ( ) 행위를 하여 국내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자국)의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① 수출보조금

② 덤핑

③ 수입할당

④ 최적관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덤핑의 정의와 덤핑, 수출보조금, 수입할당, 최적관세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덤핑: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자국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이다.
수출보조금: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정부의 보조'이다.
수입할당: 수입국이 일정 물량 이상 수입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수량 제한'이다.
최적관세: 대국이 자국 후생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론상의 관세이다. 키워드는 '후생 극대화 관세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출보조금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를 주는 정책이므로, 수출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파는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수출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수출보조금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수출보조금은 정부 지원에 관한 개념이고, 피해 발생 시에는 상계관세의 대상이 된다.

② O
덤핑은 수출국 국내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제시문 세 곳에 모두 들어간다.
WTO 체제에서도 덤핑으로 국내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X
수입할당은 수입국이 수입량 자체를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이므로, 수출업자의 가격설정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외국 수출기업이 하는 행위'를 수입할당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수입할당은 수입국 정부가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④ X
최적관세는 대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에 관한 이론 개념이므로, 불공정 수출행위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는 행위'를 최적관세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최적관세는 관세수준의 선택 문제이고, 덤핑과는 다른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수출보조금과 덤핑은 모두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덤핑은 기업의 저가수출행위이고 수출보조금은 정부지원정책이라는 점이 다르다. ③은 행위주체가 수입국이라는 점, ④는 가격행위가 아니라 관세이론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걸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이 보이면 덤핑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행위주체가 기업인지 정부인지, 가격문제인지 물량제한인지, 불공정무역행위인지 관세이론인지를 나누면 유사개념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덤핑은 저가수출, 수출보조금은 정부보조, 수입할당은 물량제한, 최적관세는 후생극대화 관세이다.

NoteBase

문 3. 최근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승소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수산물 등 식품안전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WTO 협정은?

① MFA협정

② PSI협정

③ TRIMs협정

④ SPS협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WTO 협정 약어별 규율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PS협정은 식품안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다루는 협정이다.
PSI협정은 수입물품의 품질·수량·가격 등을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를 다루는 협정이다.
TRIMs협정은 무역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투자조치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MFA는 섬유·의류 무역 관리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식품안전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선지별 해설

① X: MFA협정을 식품안전규제와 연결한 점이 틀리다. MFA는 섬유·의류 무역 관리와 관련된 개념이다. 올바르게는 식품안전규제와 밀접한 협정은 SPS협정이다.
② X: PSI협정을 식품안전규제와 연결한 점이 틀리다. PSI는 선적 전 검사 제도를 다루는 협정이다. 올바르게는 식품안전과 검역 기준은 SPS협정이 다룬다.
③ X: TRIMs협정을 식품안전규제와 연결한 점이 틀리다. TRIMs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규율한다. 올바르게는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조치는 SPS협정의 영역이다.
④ O: SPS협정은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검역과 직접 연결되는 협정이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같은 조치와 가장 밀접하다.

오답 포인트

약어만 보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PSI와 SPS를 혼동하기 쉽다. PSI는 검사 시점이 핵심인 선적 전 검사이고, SPS는 보호 목적이 핵심인 식품안전·동식물 검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협정 문제가 나오면 먼저 규율 대상을 한 단어로 붙인다. 투자조치이면 TRIMs, 선적 전 검사이면 PSI, 식품안전·동식물 검역이면 SPS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SPS는 식품안전·검역, PSI는 선적 전 검사, TRIMs는 투자조치이다.

NoteBase

문 4.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한 경제학자는?

① Friedrich List

② T. M. Rybczynski

③ E. F. Heckscher and B. Ohlin

④ David Ricardo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학자와 대표 무역이론 또는 정책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는 인물·이론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Friedrich List: 유치산업 보호론 — 후발국은 자국 산업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보호관세 등으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T. M. Rybczynski: 립친스키 정리 — 특정 생산요소의 부존이 늘어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한다.
E. F. Heckscher and B. Ohlin: 헥셔-올린 이론 —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본다.
David Ricardo: 비교우위론 —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회비용을 가진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Friedrich List는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자이다. 특히 유치산업 보호론으로 후발 공업국의 산업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으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한 경제학자'라는 연결이다. T. M. Rybczynski는 보호무역 주장이 아니라 요소부존 변화가 생산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립친스키 정리의 학자로 보는 것이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한 경제학자'라는 연결이다. Heckscher와 Ohlin은 각국의 요소부존 차이에 따른 무역패턴을 설명한 자유무역 계열의 무역이론가이며, 올바르게는 헥셔-올린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한 경제학자'라는 연결이다. David Ricardo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경제학자로 보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무역학에서는 학자 이름이 익숙하더라도 각 인물의 대표 키워드가 섞이면 오답이 된다. 특히 List는 보호무역, Ricardo는 비교우위, Heckscher-Ohlin은 요소부존, Rybczynski는 생산요소 증가의 산출효과로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문장을 길게 읽기보다 학자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보호무역과 유치산업 보호가 보이면 List를, 비교우위가 보이면 Ricardo를, 요소부존에 따른 무역패턴이 보이면 Heckscher-Ohlin을, 생산요소 증가에 따른 산출구조 변화가 보이면 Rybczynski를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List=유치산업 보호, Ricardo=비교우위, Heckscher-Ohlin=요소부존, Rybczynski=요소증가에 따른 산출변화이다.

NoteBase

문 5. 연계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상무역은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② 물물교환은 외환거래 없이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③ 대응구매는 수출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반드시 수입하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④ 제품환매는 국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준정부 차원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계무역의 대표 유형인 구상무역, 물물교환, 대응구매, 제품환매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구상무역은 수출입을 연계하여 대금을 상계하는 거래이다. 물물교환은 외환거래 없이 물품과 물품을 직접 맞바꾸는 거래이다. 대응구매는 수출계약과 별도로 일정 비율의 물품을 다시 구매해 주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제품환매는 설비·기술 등을 수출한 뒤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다시 사들이는 거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구상무역은 수출입을 서로 연계하여 대금을 상쇄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연계무역을 말하므로 설명이 옳다.
2번: O. 물물교환은 외환결제 없이 물품 자체를 서로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계무역 형태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대응구매는 수출자가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대국 물품을 별도 계약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제품환매는 국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준정부 차원의 무역거래'라는 표현이다. 제품환매는 설비·기술 수출 후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사들이는 거래이다. 국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의 준정부 차원 거래는 각서무역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제품환매와 각서무역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제품환매의 핵심은 생산설비나 기술을 수출한 뒤 생산물을 되사오는 데 있고, '국교가 없는 두 나라', '준정부 차원'이라는 표현은 각서무역의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계무역 문제는 무엇을 서로 맞바꾸는지부터 본다. 물품을 직접 교환하면 물물교환,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면 구상무역, 별도 계약으로 역구매를 약정하면 대응구매, 설비 수출 뒤 생산물을 되사오면 제품환매, 국교 부재 상태의 협정성 거래이면 각서무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물물교환은 물건 대 물건, 구상무역은 대금 상계, 대응구매는 별도 역구매, 제품환매는 생산물 환매, 각서무역은 국교 없는 준정부 거래이다.

NoteBase

문 6. 신협회적하약관 ICC(C)(2009)에 열거된 담보위험만을 모두 고르면?

ㄱ. jettison
ㄴ. fire or explosion
ㄷ. washing overboard
ㄹ. general average sacrifice
ㅁ.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협회적하약관 ICC(C)(2009)에서 열거한 최소담보 위험과 그보다 넓은 담보에서만 보장되는 위험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CC(C)는 열거위험만 담보하는 최소담보 조건이다.
ICC(C)(2009)에는 fire or explosion, jettison, general average sacrifice,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등이 포함된다.
washing overboard는 ICC(C) 담보위험이 아니라 더 넓은 조건에서 다루는 위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jettison과 ㄴ fire or explosion은 맞지만, ICC(C)에는 ㄹ general average sacrifice와 ㅁ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도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조합을 ㄱ, ㄴ으로만 한정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 ㅁ이다.

② X
ㄱ, ㄴ은 맞지만 ㄷ washing overboard를 포함시킨 점이 틀리다. 또 ㄹ, ㅁ를 빠뜨렸다.
틀린 부분은 ㄷ의 포함과 ㄹ, ㅁ의 누락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 ㅁ이다.

③ O
ㄱ jettison, ㄴ fire or explosion, ㄹ general average sacrifice, ㅁ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는 모두 ICC(C)(2009)에 열거된 담보위험이므로 조합이 정확하다.

④ X
ㄱ, ㄴ, ㄹ, ㅁ의 구성은 맞지만 ㄷ washing overboard를 추가한 점이 틀리다.
틀린 부분은 ㄷ의 포함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 ㅁ이다.

오답 포인트

ICC(B)나 보다 넓은 담보의 위험을 ICC(C)의 열거위험과 섞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ㄷ washing overboard가 대표적인 함정이고, 반대로 ㄹ general average sacrifice와 ㅁ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를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CC(C) 문제는 먼저 최소담보의 열거위험인지부터 본다. 화재·폭발, 투하, 공동해손희생, 피난항 양하는 포함되고, 해상유실처럼 더 넓은 담보에서 다루는 위험이 섞여 있으면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CC(C)는 최소담보이고, jettison · fire or explosion · general average sacrifice · port of distress discharge는 포함, washing overboard는 제외이다.

NoteBase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그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② 원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것은 반대청약에 해당하고 이를 원청약자에게 발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청약은 철회의 의사 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④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청약의 철회·취소, 반대청약, 승낙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철회와 취소를 구별하고, 반대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시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청약의 철회 = 청약이 효력을 가지기 전, 즉 도달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없애는 것이다.
청약의 취소 = 이미 효력이 생긴 청약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이다.
반대청약 = 승낙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청약의 철회는 청약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청약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승낙기간 지정 등으로 취소불능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승낙처럼 보이는 회답이라도 내용을 변경·추가하면 원칙적으로 반대청약이 된다. 다만 변경이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승낙과 반대청약은 모두 발신 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승낙기간의 지정 등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표시된 경우 그 청약은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는 CISG상 취소불능 청약의 요건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

② X
회답에 내용 변경이나 추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반대청약이 되지만, 변경이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승낙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대청약의 효력은 발신 시가 아니라 원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틀린 표현: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것은 반대청약에 해당하고 이를 원청약자에게 발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바른 표현: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회답은 원칙적으로 반대청약이 되며, 그 효력은 원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다만 변경이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승낙이 될 수 있다"

③ O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가 청약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철회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청약의 철회 요건을 정확히 적은 것이다.

④ O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승낙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달주의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②는 두 군데를 함께 흔든 선지이다. 하나는 "변경·추가가 있으면 언제나 반대청약이다"라는 과도한 일반화이고, 다른 하나는 "발신하면 즉시 효력 발생"이라는 발신주의 오인이다. CISG에서는 비중대한 변경의 예외와 도달주의를 같이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의 청약·승낙 문제는 먼저 철회인지 취소인지부터 나눈다. 그다음 회답에 변경·추가가 있으면 원칙은 반대청약, 예외는 비중대한 변경이라는 순서로 본다. 마지막으로 효력발생 시점은 발신이 아니라 도달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철회는 도달 전·동시, 취소불능 청약은 취소 불가, 승낙과 반대청약의 효력은 도달 시 발생이다.

NoteBase

문 8. 기업이 통제와 위험 정도에 따라 해외시장진입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동태적으로 설명한 모형은?

① 루트(Root)의 모형
② 버논(Vernon)의 모형
③ 러그만(Rugman)의 단순 모형
④ 니커보크(Knickerbocker)의 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시장진입방식 이론 중에서 통제 수준과 위험 부담의 변화에 따라 진입방식이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설명을 어느 학자의 모형과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루트(Root): 해외시장진입방식을 수출, 계약, 투자 등으로 나누고 통제와 위험의 조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버넌(Vernon):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생산지와 수출입 패턴이 이동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러그만(Rugman): 기업특유우위와 내부화 또는 입지 논리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틀이다.
니커보커(Knickerbocker): 과점기업이 경쟁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가는 과점반응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루트의 모형은 기업이 감수할 위험과 확보하려는 통제 수준에 따라 수출에서 계약방식, 직접투자 등으로 진입방식을 조정해 간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 표현인 '통제와 위험 정도에 따라'와 정확히 일치한다.
2번: X. 버넌의 모형은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혁신국 생산, 해외생산, 역수입으로 전개되는 위치 변화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통제와 위험에 따른 진입방식 변화'이고, 올바르게는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생산입지와 무역패턴 변화'이다.
3번: X. 러그만의 단순 모형은 기업의 우위와 내부화 유인으로 해외직접투자 여부를 설명하는 틀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통제와 위험에 따른 동태적 진입방식 모형'이고, 올바르게는 '기업우위와 내부화 논리로 국제생산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번: X. 니커보커의 모형은 과점산업에서 경쟁기업의 선행투자를 보고 후발기업이 추종 투자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통제와 위험에 따라 진입방식을 변화시킨다'이고, 올바르게는 '경쟁기업을 따라 해외투자하는 과점반응행동을 설명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버넌, 러그만, 니커보커는 모두 국제경영의 대표 이론가이므로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이론 이름이 아니라 '통제'와 '위험'이라는 판단기준을 잡아내면 바로 루트로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통제 수준, 위험 부담, 진입방식 선택이 함께 나오면 루트의 진입방식 모형을 먼저 떠올린다.
제품수명주기이면 버넌, 과점기업의 추종투자이면 니커보커, 기업우위와 내부화이면 러그만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루트는 통제·위험에 따른 진입방식 선택, 버넌은 제품수명주기, 니커보커는 과점반응, 러그만은 기업우위와 내부화이다.

NoteBase

문 9. 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은?

① FI(Free In) 조건은 선적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되, 양륙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Berth Term 조건은 선적 및 양하에 따른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FIO(Free In & Out) 조건은 선적 및 양륙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④ FIOST(Free In & Out, Stowed, Trimmed) 조건은 선적, 양륙, 본선 내의 적부비와 선창 내 화물정리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조건인 FI, Berth Term, FIO, FIOST의 비용 부담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I는 선적비만 용선자 측이 부담하고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Berth Term은 선적과 양륙에 따른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FIO는 선적비와 양륙비를 모두 용선자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FIOST는 선적비, 양륙비, 본선 내 적부비, 선창 내 화물정리비까지 모두 용선자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FI는 Free In이므로 선적비는 화주 또는 용선자 측이 부담하고,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선적비만 선주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선적 및 양하에 따른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이라는 표현이다. Berth Term은 선적과 양륙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선적 및 양륙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이라는 표현이다. FIO는 Free In and Out이므로 선적비와 양륙비를 모두 용선자 측이 부담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모두 선주가 부담"이라는 표현이다. FIOST는 Free In and Out, Stowed, Trimmed이므로 선적비, 양륙비, 적부비, 화물정리비를 모두 용선자 측이 부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약어에서 빠지는 비용 항목을 반대로 외우면 쉽게 틀린다. ②는 Berth Term을 화주 부담으로 바꾸어 놓았고, ③과 ④는 FIO, FIOST를 선주 부담으로 뒤집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In이 선적비, Out이 양륙비를 뜻한다고 잡은 뒤 Free가 붙은 항목은 그 비용이 선주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여기에 Stowed와 Trimmed가 붙으면 본선 내 적부비와 화물정리비까지 용선자 측 부담으로 확장된다.

암기 포인트

FI는 선적만 화주 부담, FIO는 선적·양륙 모두 화주 부담, FIOST는 선적·양륙·적부·정리까지 모두 화주 부담이다.

NoteBase

문 10. Incoterms 2010®에서 DAT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ㄴ.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 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ㄷ. 매수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또한 수출국 당국에 의해 명령된 선적전검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놓은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10의 DAT 조건에서 인도시점, 운송계약, 수출입통관, 선적전검사 비용부담의 귀속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AT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한 뒤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조건이다.
DAP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되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DAT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허가 취득, 수출통관, 인도 전 경유국 통관,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운송계약과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입허가, 수입통관, 관세와 조세를 부담한다.
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을 빠뜨린 조합이므로 틀리다. DAT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등 공적 인가를 취득하고, 물품의 수출 및 인도 전 제3국 통과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하므로 ㄴ도 옳다.

② O
ㄱ, ㄴ만 옳으므로 맞다. ㄱ은 DAT에서 매도인이 지정터미널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고, 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인도 전 통과국 통관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수입허가, 수입통관, 관세·조세 등은 매수인 부담이지만, 수출국 당국에 의해 명령된 선적전검사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ㄷ과 ㄹ을 포함한 점이다. ㄷ은 선적전검사 비용 부담주체를 잘못 적었고, ㄹ의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는 DAP의 인도 내용이다. DAT에서는 지정터미널에서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DAT와 DAP의 인도시점을 뒤섞어 놓고, 선적전검사 비용 부담주체까지 섞어 혼동을 유도하였다. 특히 ㄹ의 "양하준비된 상태"라는 표현은 DAT가 아니라 DAP의 핵심 문구이므로 여기서 많이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AT 문제는 먼저 인도시점이 양하 후인지, 양하준비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양하 후 터미널 인도이면 DAT이고,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상태이면 DAP이다. 그다음 통관은 수출측은 매도인, 수입측은 매수인, 수출국 명령 선적전검사는 매도인 부담으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DAT는 Terminal에서 Unloaded이고, DAP는 Place에 도착해 Ready for unloading이다.

NoteBase

문 11.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일정 수준의 제조시설과 능력을 가진 외국의 다른 기업에 생산 및 제조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 재판매하는 방식은?

① Licensing

② Franchising

③ Contract Manufacturing

④ Management Contrac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기술 제공이 수반되더라도 주문생산 후 납품받아 재판매하는 형태가 contract manufacturing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icensing: 특허·상표·기술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주고 현지 기업이 자기 계산으로 생산·판매하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권리 사용 허락이다. 키워드는 사용권이다.
Franchising: 상표뿐 아니라 운영방식·서비스 시스템·교육을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사업시스템 복제이다. 키워드는 브랜드와 운영노하우이다.
Contract Manufacturing: 외국의 생산능력을 가진 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위탁한 기업이 그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주문생산 후 납품·재판매이다. 키워드는 위탁생산이다.
Management Contract: 시설 소유기업의 경영을 다른 기업이 맡아 운영해 주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생산이 아니라 경영 기능 제공이다. 키워드는 경영위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Licensing은 기술이나 상표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방식일 뿐, 제품을 주문생산하게 한 뒤 완제품을 다시 납품받아 재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생산을 주문하고 그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현지 기업이 라이선스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생산·판매한다.
2번 X: Franchising은 브랜드, 영업방식,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패키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제조기술을 제공받아 특정 제품을 주문생산하고 납품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가맹점이 본부의 상표와 운영방식을 사용해 동일한 사업모델을 운영한다.
3번 O: Contract Manufacturing은 일정한 생산설비를 가진 해외 기업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필요하면 기술이나 설계도 제공한 뒤 완성품을 납품받아 현지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의 주문생산, 완제품 공급, 재판매가 모두 이 방식의 핵심 특징과 일치한다.
4번 X: Management Contract는 호텔·공항·공장 등 시설의 경영과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이다. 틀린 표현은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생산물 거래가 아니라 경영관리 기능과 운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오답 포인트

1번 Licensing과 3번 Contract Manufacturing은 모두 기술 제공이 언급될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Licensing은 권리 사용 허락이 중심이고, Contract Manufacturing은 주문생산 후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거래구조가 중심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주문생산, 납품, 재판매가 함께 나오면 먼저 Contract Manufacturing을 본다. 사용권 허락만 강조되면 Licensing, 브랜드와 운영시스템 이전이면 Franchising, 운영관리만 맡기면 Management Contract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문생산·납품재판매는 Contract Manufacturing, 사용권 허락은 Licensing, 브랜드 운영복제는 Franchising, 경영기능 위탁은 Management Contract이다.

NoteBase

문 12. WTO 협정의 일부로서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

② 정부조달 협정(GPA)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④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WTO 협정 가운데 모든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다자간무역협정과 일부 회원국만 가입하는 복수국간협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자간무역협정은 WTO 회원국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받는 기본 협정이다.
복수국간협정은 WTO 틀 안에 있어도 가입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협정이다.
GATT 1994, GATS, TRIPS는 WTO의 기본 다자간무역협정이고, GPA는 대표적인 복수국간협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GATT 1994는 상품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으로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다자간무역협정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정부조달 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본 점이다. GPA는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이므로 정답이다. 올바르게는 '정부조달 협정(GPA)은 WTO 회원국 모두에 일률 적용되는 협정이 아니라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이다.'가 된다.
③ O: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이다.
④ O: TRIPS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다자간무역협정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조달도 무역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GPA를 GATT, GATS, TRIPS와 같은 기본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WTO 협정의 일부'라는 표현과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TO 협정이 나열되면 먼저 모든 회원국에 자동 적용되는 기본 협정인지, 아니면 일부 회원국만 별도로 가입하는 복수국간협정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GATT 1994, GATS, TRIPS는 기본 3축으로 보고, GPA가 나오면 복수국간협정 여부를 바로 점검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WTO 기본 다자협정은 GATT 1994, GATS, TRIPS이고, GPA는 가입국만 묶는 복수국간협정이다.

NoteBase

문 13. 비관세장벽(NTB)의 조치가 아닌 것은?

① Orderly Marketing Agreement

② Countervailing Duties

③ Tariff Quota

④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관세장벽 조치와 관세우대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Orderly Marketing Agreement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억제하는 회색지대 규제이다.
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보조금으로 생긴 가격왜곡을 상쇄하려고 부과하는 상계관세이다.
Tariff Quota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이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나 무관세를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Orderly Marketing Agreement는 수출국이 수출물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의 수출자율규제이므로 비관세장벽 조치에 해당한다.
② O: Countervailing Duties는 상대국의 수출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관세로서, 출제 분류상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 조치로 본다.
③ O: Tariff Quota는 일정 물량을 넘는 수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장치이므로, 출제에서는 수입제한 성격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정리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비관세장벽의 조치'라는 분류이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이므로 무역장벽이 아니라 관세우대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관세라는 단어가 들어간 ②와 ③을 모두 관세장벽으로만 보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분류상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인지, 관세를 낮춰 시장접근을 넓히는 우대제도인지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그 제도가 수입을 막는 장치인지, 특정국 수입품에 혜택을 주는 장치인지부터 본다.
수입억제·수량통제·가격상쇄 기능이면 비관세장벽 쪽이고, 관세인하·무관세 혜택이면 일반특혜관세 같은 우대관세제도이다.

암기 포인트

OMA·상계관세·관세할당은 막는 장치이고, GSP는 열어 주는 장치이다.

NoteBase

문 14. 해외직접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이머(Hymer)의 독점적 우위이론은 현지 정부의 차별대우나 환율위험과 같은 외국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독점적 우위요소가 있어야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다.

② 선도기업 추종설은 과점적 경쟁이론 중 하나로 국내의 특정 경쟁기업이 이미 다른 국가로 진출한 기업을 쫓아 해외로 진출한다는 이론으로 이는 bull-whip effect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③ 아하로니(Aharoni)의 기업행동이론은 최초의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해외시장 기회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에서 시작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강한 외부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기 쉽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외부자극이란 경쟁사의 해외진출, 현지기업인이나 다른 외부인으로부터의 권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내부화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외부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의 체계로 내부화하여 자사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 각 이론가와 대표 설명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하이머의 독점적 우위이론: 외국기업은 현지기업보다 불리한 외국비용을 지므로 이를 상쇄할 기업특유우위가 있어야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본다.
선도기업 추종설: 과점산업에서 한 기업의 해외진출이 경쟁기업의 후속 진출을 유발하는 과점적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아하로니의 기업행동이론: 최초의 해외직접투자는 체계적 분석만으로 결정되기보다 경쟁사의 진출이나 외부 권고 같은 자극에 의해 촉발되기 쉽다고 본다.
내부화이론: 외부시장의 거래비용과 시장불완전성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의 동기가 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하이머의 독점적 우위이론은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차별, 정보 부족, 환위험 등의 외국비용을 극복하려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같은 독점적 우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지의 설명이 이 취지와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선도기업 추종설을 bull-whip effect라고 부른다는 표현이다. 선도기업 추종설은 과점기업이 경쟁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가는 과점적 반응이론으로, 보통 follow-the-leader 또는 bandwagon effect로 연결된다. 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에서 수요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뜻하므로 이 이론과 다르다.
3번 O: 아하로니의 기업행동이론은 기업의 첫 해외투자가 철저한 합리적 조사만으로 시작되기보다 외부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경쟁사의 해외진출이나 외부인의 권고를 예로 드는 설명도 맞다.
4번 O: 내부화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외부거래에 비용이 들면 기업이 그 거래를 내부조직으로 흡수해 효율을 높인다고 본다. 외부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선도기업 추종설 자체의 내용은 그럴듯하게 맞게 써 두고 마지막 용어만 다른 분야 개념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과점적 경쟁이론에서는 follow-the-leader, oligopolistic reaction, bandwagon effect 같은 표현이 연결되고 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관리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직접투자이론 문제는 문장의 세부서술보다 이론명과 대표 연결어를 먼저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하이머는 독점적 우위, 아하로니는 외부자극, 내부화이론은 거래비용, 선도기업 추종설은 경쟁기업의 후속진출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하이머=독점적 우위, 아하로니=외부자극, 내부화=거래비용 절감, 선도기업 추종=경쟁기업 따라 진출이다.

NoteBase

문 15. 국제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은 비록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한 나라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열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각 국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가능한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국가 간 무역 및 직접투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이론은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고전적 무역이론과는 달리 동일 산업 내의 무역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헥셔-오린의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은 양국 간 생산요소의 이동과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양국에서 생산요소 가격의 균등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무역이론의 핵심 전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며, 특히 각 이론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서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를 가져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이익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제품 수명주기 이론: 제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표준화 단계에 따라 생산지와 수출입 구조, 직접투자 방향이 바뀐다는 이론이다.
산업내 무역 이론: 동일 산업 안에서도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재화무역만으로 임금이나 자본수익률 같은 요소가격이 같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비교우위론은 절대우위 여부가 아니라 상대비용 차이에 따라 특화와 교역이 이루어지면 상호이익이 생긴다고 본다. 선지의 설명은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가 있어도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한다.
② O. 제품 수명주기 이론은 제품 단계 변화에 따라 선진국 수출, 해외생산, 직접투자, 역수입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선지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함께 설명 대상으로 잡고 있어 타당하다.
③ O. 산업내 무역 이론은 동일 산업 내에서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이 상호교역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고전이론이 주로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한 것과 달리 동일 산업 내 수출입의 동시 발생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지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양국 간 생산요소의 이동과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이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생산요소가 이동하지 않아도 재화무역만으로 요소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헥셔-오린의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은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이 없어도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의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요소가격균등화'라는 말 때문에 생산요소의 직접 이동이 있어야 가격이 같아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정리의 핵심은 요소이동이 아니라 재화무역을 통한 간접적 가격수렴에 있다. 3번도 산업내 무역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잘못 읽으면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무역이론 문제는 각 이론의 대표 연결고리를 먼저 잡으면 빠르게 판단된다. 비교우위론은 상대비용,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무역과 직접투자의 단계 변화, 산업내 무역 이론은 동일 산업 내 상호교역,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요소이동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통한 요소가격 수렴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상대비용, 제품수명주기는 단계별 무역과 투자, 산업내 무역은 동일 산업 내 동시 수출입, 요소가격균등화는 요소이동 없이도 상품무역으로 가격이 수렴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해상운송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선적항 내지 양륙항에 머무른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용선계약상 미리 약정한 확정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라 한다.
ㄴ.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라 한다.
ㄷ.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운임을 (㉢)라 한다.
ㄹ. 용선자가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하기로 했던 화물의 실적재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운임으로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을 (㉣)라 한다.

① ㉠: Demurrage, ㉡: Despatch Money, ㉢: BAF, ㉣: Dead Freight
② ㉠: Despatch Money, ㉡: Demurrage, ㉢: CAF, ㉣: Detention Charge
③ ㉠: Demurrage, ㉡: Despatch Money, ㉢: CAF, ㉣: Dead Freight
④ ㉠: Despatch Money, ㉡: Demurrage, ㉢: BAF, ㉣: Detention Charg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박초과손해금, 조출료, 환율할증료, 부족운임처럼 해상운송의 기본 용어를 정의와 연결해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emurrage는 허용 정박기간을 넘겨 선박이 항구에 더 머문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정박초과손해금이다.
Despatch Money는 허용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나 선적을 끝내 절약한 시간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조출료이다.
CAF는 환율 변동, 특히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환율할증료이다.
BAF는 유가 변동에 대응하는 유류할증료이므로 환율과 연결되지 않는다.
Dead Freight는 약정한 적재량을 채우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부담하는 부족운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Demurrage와 ㄴ의 Despatch Money는 맞지만, ㄷ의 BAF가 틀리다.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할증운임은 BAF가 아니라 CAF이다. ㄹ의 Dead Freight는 맞다.

② X
ㄱ이 틀리다. 정박기간 초과에 대한 확정손해배상금은 Despatch Money가 아니라 Demurrage이다.
ㄴ도 틀리다.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보수는 Demurrage가 아니라 Despatch Money이다.
ㄷ의 CAF는 맞지만, ㄹ의 Detention Charge가 틀리다. 부족적재에 대한 운임은 Detention Charge가 아니라 Dead Freight이다.

③ O
ㄱ은 Demurrage, ㄴ은 Despatch Money, ㄷ은 CAF, ㄹ은 Dead Freight로 모두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ㄱ과 ㄴ이 서로 바뀌어 있다. 정박기간 초과는 Demurrage이고, 조기 완료에 대한 보수는 Despatch Money이다.
또한 ㄹ의 Detention Charge도 틀리다. 부족적재에 대한 위약적 성격의 운임은 Dead Freight이다.

오답 포인트

Demurrage와 Despatch Money는 모두 정박기간과 관련되어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쉽고, CAF와 BAF도 둘 다 할증운임이라 원인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특히 ㄱ·ㄴ의 지급 방향과 ㄷ의 할증 사유를 바꿔 놓는 함정을 사용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박기간을 넘겨 비용을 더 내는 상황이면 Demurrage, 정박기간을 아껴 되돌려 받는 상황이면 Despatch Money로 판단한다. 할증운임은 환율 문제면 CAF, 유가 문제면 BAF로 구분하고, 약정 적재량 미달이면 Dead Freight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초과정박은 Demurrage, 조기완료는 Despatch Money, 환율은 CAF, 부족적재는 Dead Freight이다.

NoteBase

문 17. 신용장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선적서류 발행 전에 수출대금의 선지급을 허용한다는 문언이 있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 한다.

② 거래처와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불편과 경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신용장을 회전신용장이라 한다.

③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가 첨부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무담보신용장이라 한다.

④ 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이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용장 종류를 선지급 여부, 자동 재생 여부, 운송서류 첨부 여부, 국내 발행 여부라는 구분 기준으로 정확히 식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대신용장은 선적서류 제시 전에도 수익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선지급이다.
회전신용장은 일정 기간과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신용장 한도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신용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자동 갱생이다.
화환신용장은 환어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는 신용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운송서류 첨부이다.
무담보신용장은 운송서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clean credit이다. 핵심 키워드는 서류 없이 환어음 중심이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원신용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국내 공급자 대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선적서류 발행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언이 있는 신용장은 전대신용장이다. red clause credit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O: 같은 거래처와 반복 거래를 할 때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한 신용장은 회전신용장이다. 반복 거래의 편의를 위한 신용장이라는 점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운송서류가 첨부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무담보신용장"이라는 표현이다. 운송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화환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은 환어음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운송서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이다.
④ O: 국내 수출업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은 내국신용장이다.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의 국내 조달에 활용된다는 점까지 포함해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운송서류 첨부"라는 화환신용장의 핵심 문구를 넣어 두고 명칭만 무담보신용장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명칭만 훑으면 넘어가기 쉽지만, 신용장 종류 문제는 선지의 핵심 키워드를 명칭과 연결해 대조하면 바로 걸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용장 종류 문제는 먼저 선지의 결정 단어를 잡아 분류한다. 선지급이면 전대신용장, 자동 재생이면 회전신용장, 운송서류 첨부이면 화환신용장, 국내 공급자 대상이면 내국신용장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지급은 전대, 자동 갱생은 회전, 서류 첨부는 화환, 국내 공급자 대상은 내국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8. 문화 환경을 분석하는 주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러크혼(Kluckhohn) 모형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기준, 인간본성 기준, 시간지향성 기준, 공간지향성 기준, 활동지향성 기준, 인간관계 기준 등 문화가 갖는 가치지향성을 기준으로 문화속성을 분류한 모형이다.

② 슈와르츠(Schwartz) 모형은 인간이 가지는 가치를 보수주의와 자율성, 계층주의와 평등주의, 정복과 조화 등으로 구분하여 각국 문화를 설명한 모형이다.

③ 홉스테드(Hofstede) 모형은 문화속성을 권력간격,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등의 차원으로 나눠 문화분류 기준으로 삼은 모형이다.

④ 홀(Hall) 모형은 평등성과 계층성을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대인지향성과 과업지향성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 네 가지 유형의 기업문화를 분석한 모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화환경 분석 모형의 대표 학자와 각 모형의 핵심 분류 기준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클러크혼 모형: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본성, 시간지향성, 활동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기준으로 문화의 가치지향성을 분류하는 모형이다.
슈와르츠 모형: 보수주의-자율성, 위계-평등주의, 지배-조화 같은 가치 차원으로 사회의 문화가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홉스테드 모형: 권력간격,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등의 차원으로 국가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홀 모형: 고맥락-저맥락 커뮤니케이션, 단일시간-다중시간 같은 의사소통 방식과 시간관념을 중심으로 문화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트롬페나르스 모형: 평등성-계층성, 대인지향성-과업지향성의 조합으로 가족형, 에펠탑형, 유도미사일형, 인큐베이터형 같은 기업문화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클러크혼 모형은 문화권이 어떤 가치지향을 가지는지 비교하는 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본성, 시간지향성, 공간지향성, 활동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본다. 선지의 연결이 맞다.
② O: 슈와르츠 모형은 사회의 가치체계를 보수주의와 자율성, 계층주의와 평등주의, 정복과 조화 같은 축으로 설명한다. 선지의 분류 기준이 맞다.
③ O: 홉스테드 모형은 권력간격,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등의 차원으로 문화차이를 비교한다. 선지의 설명이 대표 차원과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홀(Hall) 모형은 평등성과 계층성, 대인지향성과 과업지향성의 매트릭스로 네 가지 유형의 기업문화를 분석한다'는 연결이다. 이 매트릭스는 홀 모형이 아니라 트롬페나르스 모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홀 모형은 고맥락-저맥락 커뮤니케이션과 시간지향의 차이로 문화를 분석한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홀과 트롬페나르스는 모두 국제문화 비교 모형이어서 서로 섞기 쉽다. 특히 ④처럼 '네 가지 유형의 기업문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평등성-계층성과 대인지향성-과업지향성의 2축 매트릭스를 떠올려야 하며, 이는 트롬페나르스 쪽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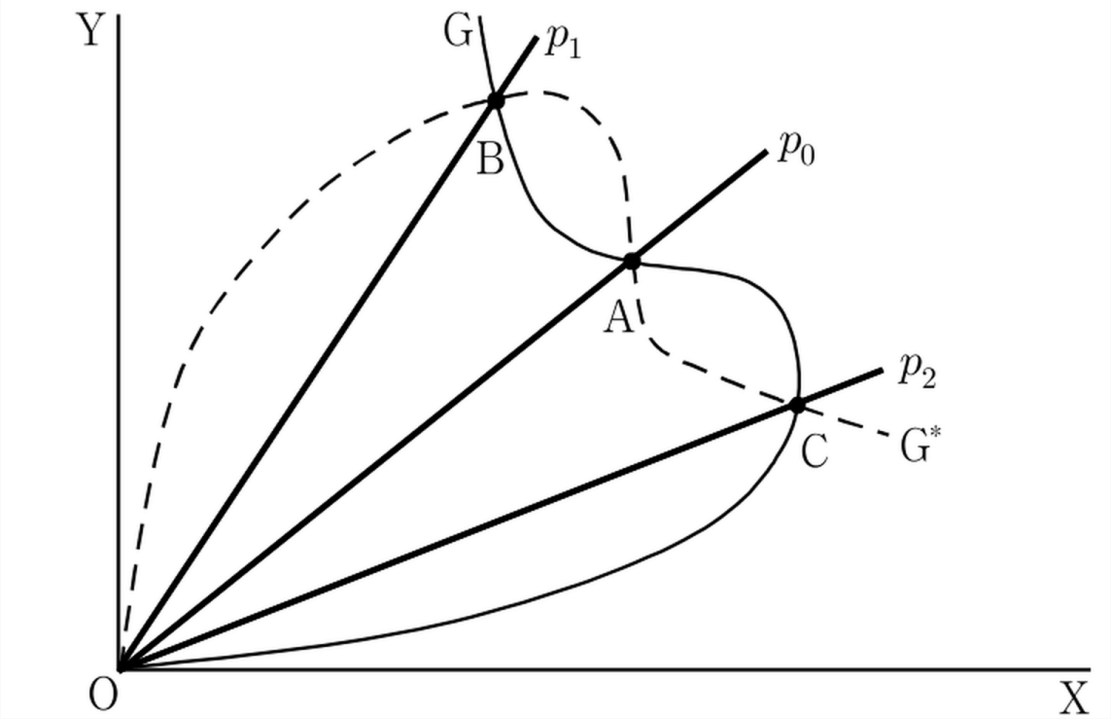
학자 이름을 보면 먼저 대표 키워드를 1개씩 붙여서 판단한다. 클러크혼은 가치지향성, 슈와르츠는 사회적 가치차원, 홉스테드는 국가문화 차원, 홀은 고맥락-저맥락, 트롬페나르스는 기업문화 4유형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홀 = 고맥락·저맥락, 트롬페나르스 = 2축 매트릭스의 기업문화 4유형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오퍼곡선(offer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_0 = (P_x/P_y)_0$, $p_1 = (P_x/P_y)_1$, $p_2 = (P_x/P_y)_2$는 X재의 상대가격으로 교역조건을 나타냄)



① G는 X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퍼곡선이고, G*는 Y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퍼곡선이다.

② A, B, C점에서 무역균형이 달성되고 있다.

③ A는 안정적 균형이고, B와 C는 불안정적 균형이다.

④ X재의 국제상대가격이 p_0보다 크고 p_1보다 작은 경우 X재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Y재 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오퍼곡선의 교점이 모두 무역균형점이 된다는 점과, 각 교역조건선 근처의 초과수요·초과공급 방향으로 안정적 균형과 불안정적 균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오퍼곡선은 각 교역조건에서 한 나라가 수출하려는 재화와 수입하려는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의 물량을 나타내며, G 곡선은 각 교역조건에서 X재를 내놓고 Y재를 받는 나라(X재 수출국), G* 곡선은 반대로 Y재를 내놓고 X재를 받는 상대국(Y재 수출국)의 선택을 나타낸다.
안정성 판별의 일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교점 근처에서 X재의 상대가격이 커지는 방향으로 교역조건선을 조금 돌렸을 때 X재에 초과공급이 나타나 상대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그 교점은 안정적이고, 반대로 초과수요가 커져 상대가격이 더 올라가면 불안정적이다. 두 오퍼곡선이 세 번 교차하는 이 그림처럼 교점이 세 개일 때는 가운데 교점이 불안정, 바깥쪽 두 교점이 안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이므로 원점에서 뻗은 교역조건선 위의 점은 그 나라가 얼마의 X재를 내주고 얼마의 Y재를 받는지를 보여 준다. G는 각 교역조건에서 X재를 공급하고 Y재를 수요하는 나라, 즉 X재 수출국의 오퍼곡선으로 읽힌다. G*는 그 반대로 Y재를 공급하고 X재를 수요하는 상대국의 오퍼곡선으로, Y재 수출국의 곡선이다.
2번 O: 두 나라의 오퍼곡선이 만나는 A, B, C에서는 한 나라의 X재 수출량과 다른 나라의 X재 수입량, 한 나라의 Y재 수입량과 다른 나라의 Y재 수출량이 동시에 일치하므로 모두 무역균형점이다.
3번 X: 그림의 안정성은 진술과 반대이다. A는 세 교점 중 가운데 교점이다. A의 위쪽(교역조건이 p0과 p1 사이)에서는 상대국 G*가 원하는 X재 수입량이 G의 X재 수출량보다 커서 X재에 초과수요가 생기고, 이에 따라 X재 상대가격이 더 올라가 교역조건이 A에서 멀어져 B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A의 아래쪽(교역조건이 p2과 p0 사이)에서는 X재에 초과공급이 생겨 상대가격이 더 내려가 교역조건이 A에서 멀어져 C 쪽으로 이동한다. 즉 A는 양쪽 모두에서 교역조건이 되돌아오지 않고 멀어지므로 불안정적 균형이다. 반면 B와 C에서는 교역조건이 조금 벗어나도 초과수요·초과공급의 방향이 다시 그 점 쪽으로 가격을 되돌리므로 안정적 균형이다. 따라서 틀린 표현은 "A는 안정적 균형이고, B와 C는 불안정적 균형이다"이고, 올바르게는 "A는 불안정적 균형이고, B와 C는 안정적 균형이다"이다.
4번 O: 교역조건이 p0과 p1 사이일 때, 그 기울기의 교역조건선 위에서 G* 곡선은 G 곡선보다 바깥쪽(X재 방향으로 더 멀리)에 놓여, 상대국 G*가 수입하려는 X재 물량이 G가 수출하려는 X재 물량보다 많다. 따라서 X재 시장에는 초과수요가 생기고, 이에 대응하여 Y재 시장에는 초과공급이 생긴다.

오답 포인트

교점이 여러 개이면 모두 같은 안정성을 가진다고 보면 틀린다. 이 그림에서는 A가 가운데 교점이지만, A의 양옆에서 가격이 A로 돌아오지 않고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불안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교점마다 그 교역조건선의 바로 위와 바로 아래 가격을 가정한 뒤, X재에 초과수요가 생기면 상대가격이 올라가고 초과공급이 생기면 상대가격이 내려간다고 본다. 이렇게 가격이 다시 원래 교점으로 돌아오면 안정, 더 멀어지면 불안정으로 판단한다. 교점이 세 개일 때는 가운데가 불안정, 바깥 두 개가 안정이라는 일반 형태도 함께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오퍼곡선의 교점은 모두 균형점이고, 안정성은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교점 주변의 초과수요 방향으로 결정된다.

NoteBase

문 20. 무역거래 과정에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관계 - 매도인(Seller): Beneficiary, 매수인(Buyer): Applicant

② 화물관계 - 매도인(Seller): Consignor, 매수인(Buyer): Consignee

③ 채무관계 - 매도인(Seller): Accounter, 매수인(Buyer): Accountee

④ Incoterms 2010® CIF조건의 보험부보관계 - 매도인(Seller): Assurer, 매수인(Buyer): Assured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거래 단계별 당사자 명칭을 구별하고, 특히 CIF 조건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Beneficiary는 신용장에서 대금을 받을 수익자로 통상 매도인이고, Applicant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매수인이다.
Consignor는 화물을 보내는 송화인이고, Consignee는 화물을 인수하는 수화인이다.
Accounter는 대금을 받을 채권자이고, Accountee는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이다.
CIF 조건의 보험부보관계에서 Assurer는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이고, Assured는 보험사고 시 보상을 받는 피보험자이다. CIF의 매도인은 보험자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Applicant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신용장관계에서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이므로 Beneficiary이고, 매수인은 개설의뢰인이므로 Applicant이다.
2번 O: 화물관계에서 매도인은 화물을 송부하는 Consignor이고,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Consignee이다.
3번 O: 채무관계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채권자이므로 Accounter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이므로 Accountee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매도인 = Assurer'이다. Assurer는 보험회사인 보험자를 뜻하므로 CIF 매도인의 지위가 아니다. CIF에서 매도인은 보험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Applicant이고, 매수인은 피보험자인 Assured이다.

오답 포인트

CIF에서는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 주므로 매도인을 곧바로 보험자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을 부보하는 자와 보험을 인수하는 자는 다르며, 보험자는 보험회사이고 매도인은 보험계약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용어 매칭 문제는 각 관계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보내는지,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는지, 누가 보험을 인수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보험을 드는 당사자와 보험회사 자체를 먼저 분리하면 CIF 선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CIF에서 매도인은 보험자 아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자, 매수인은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보험자이다.

NoteBase